

## 우리는 되살아났습니다!

19차 5년마다 열리는 재속프란치스칸 대회(Q)의 폐막 미사 바로 전에 아마도 영감을 받은 노래를 저는 자원해 불렀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낀 불안감은 지난 3일간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한 기쁨에 압도되었습니다. 그 노래는 제 가슴에서 흘러나왔고, 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느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셨나요! 높은 그의 이름을 우리는 찬양합니다! 훌륭한 총회였고 우리는 되살아났습니다!"라고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훌륭한 Q 대회였습니다 - 우리 영혼을 되살아나게 하시는 하느님의 역사를 참으로 볼 수 있는 대회.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을 성찰하고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프란치스칸 정신이 되살아났나요?" 나의 대답은 "오 여러가지면 에서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약간의 성찰을 나누지만 TAU의 이번 호의 매 페이지가 Q대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얻은 것을 나누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합니다.

**형제회의 정신:** 600 명의 프란치스칸과 한 방에 있는 것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주위를 돌아보니 돛자리 총회에 모여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아씨시의 프란치스에 의하여 변환되었는지 서로 나누는 초창기의 프란치스칸을 연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Q에서의 우리의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는 듣고, 나누고 웃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준 많은 프란치스칸 형제 자매들과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우리는 별로 낯설지 않은 새로운 프란치스칸들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영감을 주는 이야기를 들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많이 주고 열심히 일한 많은 훌륭한 발표자와 재능 있는 재속 프란치스칸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 형제애의 기쁨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소명의 정신:** 우리 소명의 핵심을 바라보도록 인도한 덴 호란 (Dan Horan) 수사에게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선물을 받았나요. 프란치스의 삶으로부터 프란치스칸 삶의 기초인 그 특별한 카리스마 - 소수, 자비, 보편적 연대감, 가난, 평화, 사랑, 기쁨을 끄집어 내었습니다. 우리의 세계는 이런 것을 매우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세계에서 어떻게 이러한 카리스마 를 나타낼까? 우리가 당면한 도전을 생각할 때 우리 소명을 살기 위해 필요한 헌신의 심각성은 정신이 번쩍 들게 합니다. 그럼에도 저의 응답은 저의 최선을 다하는 것 입니다. 레스터 박(Lester Bach) 수사의 말에 따르면 "우리의 소명은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프란치스칸 서약의 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를 기대 합니다." 더 깊이 마음속으로 내려가야 하는 저의 소명을 다시 갱신하였습니다.

**회개의 정신:** 이 Q대회에서 양성은 또한 우리자신과 우리의 회개의 필요성을 바라보도록 도전하였습니다.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제 일지에 쓴 한 기도입니다. "주님 제가 당면하기를 두려워하는 나 자신에 대한 진실을 보도록 도와주소서."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얼마나 순순히 받아드리는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하여 기꺼이 시간을 내는가? 새로운 방법으로 사물을 바라보기 위하여? 저는 배움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변화에 대하여? 우리는 변화할 수 있고 종종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자비, 소수와 하느님을 믿음이 회개와 매우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Q대회가 저를 회개자로서 되살아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화해의 정신:** 중재자와 화해자가 되어야하는 프란치스칸 소명이 강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종종 쉽게 답변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맞습니다. 프란치스칸은

가교의 역할을 하고, 대립되는 관점으로 인한 긴장을 성실히 몸소 막아내도록 불림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매인 캐럴린 타운스 (Carolyn Townes)가 암시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조금 뒤로 물러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숨을 쉬십시오. 우리 안에 하느님의 평화를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대화를 더 깊이 하고, 양편이 싸움을 멈추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추구하도록 성령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중재하는 것은 사랑의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항상 되살아나게 합니다.

**일치의 정신:** 우리는 매우 개인적이고, 매우 다양하여, 많은 다른 관점과 경험 그리고 매우 많은 재능이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는 각양각색이지요! 그런데도 일치감을 경험한 것은 멋진 일입니다! 한 자매가 저와 나눈 바와 같이 "나는 오직 한 생명이 있고 우리 모두는 그 생명의 한 부분임을 계속 더욱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와! 우리는 이 일에 진정으로 함께 합니다. 우리는 성체성사안에서 이 한 생명을 매우 깊이 기념합니다. 그리고 Q 대회에서의 전례는 풍요했습니다. 영송체송 중의 노래의 한 구절이 제 마음에 떠오릅니다. "우리는 다수이고 낙담하여 오지만 우리는 하나가 될 것이다" - 우리의 빈곤함과 일치의 욕망에 대한 증거. 노래 부르는 600 명의 프란치스칸의 한 목소리는 마음을 들어 오렸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600 명의 프란치스칸의 한 목소리는 힘찼습니다. 한 노래. 한 기도. 한 사랑. 우리는 서로 껴안을 때 마다 그것을 느꼈습니다! 재속프란치스코회의 일치에 대한 새로운 자신감을 가지고 떠나 왔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집중할 때 그 중심은 버틸 것 입니다.

**부흥의 정신:** 노래에도 있듯이 "우리는 되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자신을 소생시키지 않았습니. 우리의 국가 형제회 회장 티보르 카우저 OFS 가 지혜로이 나눈바와 같이 하느님이 "우리를 되살리셨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잘 묘사 하였습니다. 흥부압박을 사용해서 사람을 살리는 관행에서와 같이 "우리는 종종 충격이 필요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시고, 입김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면서 구장 대 구장 인공호흡법을 실행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요한 20.22)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묘사했습니다." Q 대회는 매우 그와 같았습니다 - 그리스도안에서 우리를 소생시키는 성령의 주입이었습니다. (몇 개의 간단한 슬라이드로 프란치스칸 부흥의 본질을 포착한 티보르의 발표가 우리의 Q 웹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http://www.quinquennial.org/pp-slides.html> )

**복음화의 정신:**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이를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Q 위원회가 쓴 프로그램에 의하면 "이 Q 2016 대회의 목적은 우리가 말과 생각과 행함으로 복음을 살기 위해서 오늘날의 세상에 있어서 우리의 역할을 깊이 이해하며 밖으로 나가서 복음을 나누는 것이며 ..."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프란치스칸 소명의 선물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카리스마 (은사들)가 우리자신들 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프란시스 교황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은사들)은 안전하게 확보되고 소수의 그룹에 보관을 위해 위탁된 상속물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중심 (그리스도)을 향한 교회의 몸매 스며든 성령의 선물이며 복음을 전파하려는 충동이됩니다." (참고. 복음의 기쁨 *Evangelii Gaudium*, 130-131 항). Q 대회의 축복은 나누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프란시스 성인의 말대로 "상처를 치유하고, 흠어진 것을 결합하고 길 잃은 자를 집으로 데려오기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려는 충동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금요일 미사 중에 주니페로 세라 성인의 축일의 복음에서 이 소명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라." 마틴 빌저 신부님이 그의 강론에서 이 소명을 되풀이 하여 이렇게 말 하였습니다. "가십시오! 기쁨마음으로 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나서 눈을 반짝이며 "달리십시오 포레스트, 달리십시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 우리 달립니다! 하늘님의 은총에 의해 제가 확신을 가지고 부를 수 있었던 노래의 가사처럼 "지금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가십시오! 문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더 나누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랑을 주어야하고, 복음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되살아났습니다! 높으신 하느님을 찬미 하십시오! 우리들은 되살아났습니다!

### **우리는 되살아났습니다!**

(글로리아 케인의 "나는 살아남을 거야"의 곡에 맞춰서. 다이노 펠카리스 와 프레디 페렌의 작곡)

(Q 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불렀음)

처음에는 당신은 두렵고 약간 겁에 질렸지요. 그러나 당신 옆에 있는 여성들과 더불어 "예, 나는 그것을 할 것입니다"라고 당신은 말하였습니다. 당신은 오, 매우 열심히 그리고 오래 일하며 오, 매우 많은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강해지고 또 사이 좋게 지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여기 이 큰 장소에 있습니다. 예, 당신은 당신 얼굴의 미소로서 모든 것을 한 군데에 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께 감사하고 싶어서 작별하기 전에 당신을 여기 불렀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견디어낸 것을 하느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감사 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과 여러분 모두에게

(모인 모든 사람에게 향하면서)

이 놀라운 Q 대회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 우리 하느님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셨나요!

우리는 그의 높은 이름을 찬양합니다!

대단한 Q 대회였고 우리는 되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되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되살아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고, 성령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랑을 주어야하고,

복음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되살아났습니다. 예, 우리는 되살아났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연설자에게 귀를 기울였고,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몫을 다했습니다.

예식과 강론 그것들은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었고,

그리고 모든 달콤하고 달콤한 친교 - 너무 빨리 우리가 작별인사를 할 것 입니다!  
오, 저는 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깃발을 높이 올립시다!

우리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 그래서 문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더 나누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랑을 주어야하고, 복음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되살아났습니다! 우리는 되살아났습니다! 야아! 야아!

지금 보십시오 - 우리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지 모르는 사슬에 묶인 작은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들르셨고, 하느님께서 이 자비의 해에  
가서 그의 교회를 재건하라고 여러분과 저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가십시오! 문 밖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더 나누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사랑을 주어야하고, 복음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되살아났습니다! 높으신 하느님을 찬미 하십시오!  
우리들은 되살아났습니다!

